

口碑詩歌의 텍스트 구성 책략

韓 彩 榮*

목	차
1. 머리말	(1) 음의 유사성
2. 구비시가 텍스트의 구성 원리	(2) 의미의 유사성
2.1 사실의 반복적 위임 원리	2.3 사실 구성의 인접성 원리
2.2 사실 구성의 유사성 원리	3. 맺음말

1. 머리말

口碑詩歌는 구비 傳承의 노래이자, 율문 양식의 언어예술이다. 구연 현장에서 관찰할 때 구비시가의 가창자 곧 구비연행자는 구비시가를 보다 용이하게 구연하고, 텍스트를 기억하기에도 쉽고, 회상 재현해 내기도 쉬게 하기 위하여 텍스트 구성상의 책략을 발휘한다.

텍스트는 월(sentence)들로 이루어지지만, 월들을 만드는 규칙 이상의, 그와는 다른, 텍스트의 구성 원리들(principles of text-construction)이 존재한다.

¹⁾ 구비시가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텍스트의 구성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고

*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강사

1) Roger Fowler : *Linguistic Criticism*(Oxford : Oxford Univ. Press, 1986) p. 59.

찰함으로써, 구비시가 사실의 구조를 보다 조직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구비시가의 텍스트 구성 책략을 문학 기호학 및 텍스트 언어학의 관점에서 논의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텍스트 언어학 내지는 담화 분석적 방법은 텍스트가 엮어지는 구조상의 원리들을 체계화하려는 성향을 보이므로, 본고의 연구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텍스트 분석은 口碑詩歌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民謠를 중심으로 하되, 高麗歌謠 중의 俗歌,²⁾ 雜歌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2. 구비시가의 텍스트 구성 원리

구비시가는 口演 現場에서 볼 때, 音聲 言語를 전달 매체로 삼아 의사를 전달하는, 말을 주고 받는 방식의 일종으로서 담화라 할 수 있다. 말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담화 행위를 뜻한다. 구비시가는 노래라는 특수한 방식의 담화 행위를 취한다.

담화는 월들이 일정한 화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엮여짜인 것으로, 월보다 상위의 언어적 단위이다. 그리고, 그것을 짜이루고 있는 월들은 부러쑀 월(또는 발화utterance)이다. 담화에서 월(발화)들이 상호간에 긴밀하게 엮여짜인 구조 그 자체를 <묶음>(결속구조 cohesion)이라 하며, 월과 월들로 엮여져서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논리적·의미적 관계를 <묶음관계>(결속성 coherence)라 한다. 담화는 발화들이 연속적으로 엮여져 짜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화제를 중심으로 하여 발화들이 엮어진 단락과 같은 구성단위들로 실현된다. 이러한 구성단위의 기능이나 구성단위들이 담화를 짜이루는 모습 따위를 연구하는 분야를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이라 한다.³⁾

구비시가의 담화 분석이란 이와 같은 구성단위들의 상호 결합 방식을 체

2) 이하 高麗俗歌라 칭하고자 한다. 국문시가 갈래의 高麗歌謠 중 경기체가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담화와 그에 부수 되는 개념들은 김일웅, 「담화의 짜임과 그 전개」, 『인문 논총』, 제34집 (부산: 부산대학교, 1989)을 참조하였음.

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구비시가는 텍스트의 구성단위들을 상호 관련지어 엮는 '결속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구비시가는 구연 현장에서의 정보전달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발화체의 연속성을 조장·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언급한 내용을 재언급하거나, 이미 사용한 구성요소를 재사용하면서 앞선 사실과 뒤따르는 사실을 상호의존적으로 엮어간다. 곧 구비시가 사실은 주로 반복의 여러 방식들을 동원하여 결속구조를 형성하고 있다.⁴⁾ 또한, 구비시가는 구성단위들을 '유사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선택·결합하며, 이들 구성단위들을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하게 되는 체계적 사실 구성방식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논의해 보기로 한다.

2.1 사실의 반복적 엮음 원리

구비시가는 텍스트의 결속구조(cohesion)를 강화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여러 구성요소들을 반복한다. 이제까지의 우리 시가문학의 연구에서도 노래말이 지니는 반복의 특질을 주목하고 이에 관한 연구 성과도 상당히 집적되었다 할 수 있다.⁵⁾ 그러나, 기존의 시가문학 연구에서는 반복의 여러 요소에 대한 철저한 개념구분이 미흡한 채로 논의되어, 반복과 병렬(또는 병행 parallelism)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병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된 경우가 많았다.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텍스트의 결속구조를 강화하면서 정보처리의 안정성과 용이성을 기하기 위해 텍스트 구조 내에서 이미 사용한 구조나 패턴이 재사용되는 경우를 반복(repeti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미 사용한 구성소를 무엇이든지 재사용한 경우는 반복이라 할 수 있어서 반복의 개념은 그 세부의 갈래의 구분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그 세부 갈래를 다음과 같이

4) 엮음 [결속구조]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식들은 1) 대용화(대용과 생략), 2) 되풀이, 3) 엮음말 등이 있다. 김일웅, 같은논문, 참조.

5) 민요의 반복적 특질에 관한 연구는 김대행님의 연구 성과가 특히 두드러진다. 김대행님은 『한국시의 전통연구』(서울:개문사, 1980) pp. 40-59에서 민요 구조가 가지는 반복의 요소를 병렬이라는 개념으로 통괄 논의하였다.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⁶⁾

- 1) 되풀이(recurrence) : 이미 사용한 구성요소를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
- 2) 병행구문(parallelism) : 동일한 통사 구조를 재사용하되, 그 통사구조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삽입해서 재사용하는 것.
- 3) 환언(paraphrase) : 같은 내용을 재언급하되,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

곧, <되풀이>는 기존의 수사학에서 반복법이라 흔히 칭하던 것으로, 텍스트의 구성요소를 단순 반복하므로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은 것이라면, <병행구문>과 <환언>은 이미 사용한 구성요소를 재사용하되, 수정·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병행구문>이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면, <환언>은 동일 의미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김대행님은 ‘민요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성의 원리가 並列(parallelism)의 구조다’⁷⁾라고 하고서, ‘병렬이란 동질적 요소를 나란히 배열하는 방식’⁸⁾이라 정의하였다.

- [1] 강실 강실 강실 도령⁹⁾
- [2] 가랑비 새우가 울 줄 알면 청사도복을 줄에 널까
나갔든 님이 오실 줄 알면 문을 걸고 잠이 들까¹⁰⁾
- [3] 아니놀고 못살래라 또 아니놀고 못하리라/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
밖에 또있는가/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세상 천지 만
물중에 인간 밖에 또있는가¹¹⁾

김대행님은 민요 [1]에서 ‘<강실>은 行에서 병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민요 [1]이 ‘같은 어휘라는 동질적 요소가 나란히 배열된 것이

6) Robert-Alain de Beaugrande & Wolfgang Dressler(김태욱·김현화 공역),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서울: 양영각, 1991) p.46 참조.

7) 金大幸(1980) p. 40.

8) 같은 책, p. 41.

9) 任東權, 『韓國民謠集 1』, (집문당, 1961), p. 409 「강실도령謠 2」 첫행.

10) 같은 책 p. 3. 「移秧謠 2」全文.

11) 金承燦; 『한국구비문학대계 8-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 285. 「창부타령」중에서.

라면, [2]는 의미가 같은 요소를 두 행으로 나란히 배열하는 병렬이다. [1]처럼 완전히 똑같은 요소의 병렬은 반복이라고 하는데, 반복은 병렬의 하위 개념이 된다'라고 하였다.¹²⁾ 그러나, 본고에서 필자는 [1]와 같은 것은 <되풀이>로 처리하였고, 이를 병행구문(parallelism)과는 구분하고자 한다. 아울러 <병행구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되풀이>, <환언> 등과 더불어 반복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필자는 <병행구문>¹³⁾은 위 민요 [2]와 같이 “동일 통사구조를 반복하되 그 구조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삽입하여 재사용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위 민요 [2]에서는 <~가(이) ~ (할) 줄 알면 ~을 ~ (할) 까>라는 통사구조의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민요 [3]은 <되풀이>와 <병행구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람”을 “인간”으로 <환언>하면서,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서, 텍스트의 길이를 연장하고 있다. 민요 [3]은 구비 시가에서 반복의 여러 요소는 중첩되어 사용될 수 있고, 그럴수록 텍스트의 위음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12) 김대행, 앞의 책, p. 41.

13) 병행구문은 다음과 같은 용어로 지칭되면서 기존 연구에서 이미 폭넓게 논의되었다. 並列(金大幸·李憲洪·최재남·박경신), 並行體(최미정·강등학), 並置(오세영·고현철·박경수) 등이 그것이다.

李憲洪: 「판소리의 傳承構造 研究」(부산대학교 대학원, 1981)

최재남: 「口碑의 측면에서 본 時調의 시적 구성방식」(서울대학교 대학원, 1983)

박경신: 「巫歌의 作詩原理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1991) p. 54f.

강등학: 「旌善 아라리의 연구」(집문당, 1988), pp. 142-154.

崔美汀: 「別曲에 나타난 並行體에 대하여」, 백영 정병옥 선생 환갑기념 『韓國詩歌文學研究』(신구문화사, 1983)

吳世榮: 「韓國浪漫主義詩研究」(일지사, 1980), pp. 52-55.

고현철: 「1920년대 민요시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1986)

박경수: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1989) pp. 52-57.

2.2 사설 구성의 유사성 원리

언어는 본래 기호 속에 소리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어서, 텍스트에 동원되는 언어의 분석도 역시 ‘소리와 의미의 두 층위’에서 행해질 수 있다.¹⁴⁾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구비시가 사설의 구성에 사용되는 어휘들이 비슷한 종류들로 선택되고 결합되는 원리, 곧 사설 구성의 유사성의 원리를, <음(signifiant)의 유사성 원리>와 <의미(signifié)의 유사성의 원리>로 나누어 고찰해보기로 한다.

(1) 음의 유사성

음의 유사성 원리는 음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이용하여 텍스트 구성에 사용되는 어휘들을 선택하고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곧, 구비시가의 사설에는, 의미의 유사성이 다소 희박한 어휘들을 음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입각해서 선택하고 상호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 음의 유사성의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는 어휘들은 동음이의어(homonymy)와, 유음어(paronymy; 부분적인 유사점일 경우)들이다.¹⁵⁾ 구비시가는 이들 동음이의어와 유음어가 가지는 말소리의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요한 사설 구성원리로 삼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버지기 벗넌네야/툽발이 숙질들아/동우 동시들아/식기 시숙들아/
사발 사돈네야/접시 일꾼들아/종지 줄개들아/마당에 마느래넌/왔
거들랑 왔다쿠소/나무아미타불¹⁶⁾

[5] 허라품바 각설아/들거리고 나온다/일자날을 들어라/일월이송송 하
송송/일평성을 우리낭군/일각삼추 보고지고/이자날을 들어라/이
군불사 충신이요/이부불경 열너로다/허라품바 각설아/거들거리고
나온다/니 선생이 누군지/남보다도 잘한다/「중략」/오자로 들어라
/오마로 오신 사또/오문을 밝히시오/오마로 오신사또/오문어찌

14) Jean Cohen: Structure du Langage poétique (Flammarion, 1966) 김기봉: 「상징주의 시에 있어서의 언어의 문제」, 『문학의 해석(서강학술논총 문학편 1)』 (서강대학교출판부, 1988) p. 118. 再引.

15) Oswald Ducrot & Tzvetan Todorov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역), 『기호학사전』 (우석출판사, 1990), p. 234.

16) 張瑄鎮: 「咸安지방의 구비문학 조사보고 -민요편-」, 『한국문화연구』, 제2집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9) p. 248f. 「그릇타령」全文.

모르리카/[하락]¹⁷⁾

구비시가의 사실 구성에서 음의 유사성을 지니면서 선택·결합되는 어휘는 類音語와 同音異義語들이다. 유음어들을 상호결합하여 음성적 등가성의 연쇄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바로 類音語重疊法(paronomase)이며, 특별히 어절의 처음절에 동음을 가진 유음어들을 결합하는 경우가 두음중첩법이다.

유음중첩법은 유음어들을 중첩시켜서 어휘들의 상호 결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구비시가 사실에서 음의 유사성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구성법이라 할 수 있다. 민요 [4]에서 끝 두 행을 제외한, 병행구문에서 분석할 수 있는 동일 통사구조는 <명사(그릇 명)>+<명사(가족을 비롯한 주변인)>+호격 조사>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병행구문을 보여주는 각 행들의 명사와 명사 사이의 결합은 의미상의 유사성을 도출하기 힘든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곧 그릇의 종류로서 나열된 어휘들과 가족 및 주변인의 부류로서 제시된 어휘들 사이에는 공통되는 의미 자질을 발견해 낼 수 없다. 그 반면, 음의 유사성이 이들의 결합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곧 이 민요의 각 행에서의 어휘들 상호간의 결합은 의미들 사이의 유사성이 아니라, 음의 유사성에 입각해 있다. 위 민요가 바로 <유음어 중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분석해 내면,

<버지기(자배기) - 벗님>	: [버 - 벗]
<북바라(뚝배기) - 숙질>	: [북 - 숙]
<동오(동이) - 동시(동서)>	: [동]
<식기 - 시숙>	: [식 - 시]
<사발 - 사돈>	: [사]
<종지 - 줄개>	: [종 - 줄]
<마당 - 마누래>	: [마]

등인데, 이들은 각기 그 어휘의 처음절에 유사음 또는 동음을 중첩시키고 있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 민요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행마다 의미상의 유사성이 희박한 어휘들의 결합에서 오는 의미적 단절(결합에 있어서의 의

17) 金承燦;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p. 727-729. 「장타령」 全文.

미상의 부적절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음성적 유사성을 강화함¹⁸⁾에 틀림없다.

음은 비슷하지만 의미상으로 상이한 말들을 결합한, 이와 같은 유음어중첩법은 의미상의 관계를 비추어 보면 임의적이고 이차적이지만, 의미의 강도를 크게 심화시켜 줄 수 있다. 유사음의 역할이 가장 중시되는 세 영역은 어원추론(민간어원설은 이에 해당한다), 시 그리고 말놀이(word play)라 할 수 있다.¹⁹⁾

頭音重疊法은 어절의 첫음절이 동일한 어휘들을 상호 결합시켜, 동음 연쇄의 효과를 노리는 사설 구성 방식을 말한다. 이 <두음중첩법>은 유음어중첩법의 특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음중첩법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어휘들은 어휘들의 관계 분류 차원에서는 <유음어들>에 속하기 때문이다.²⁰⁾ 이 두음중첩법은 서양 작시법에서 거론하는 두운법(alliteration)이라는 일종의 음성적 상징(phonetic symbolism)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¹⁾

「각설이타령」계열의 위 민요 [5]는 두음중첩법에 의해 각 의미단락들을 생성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일자날> - <日月> - <一平生> - <一刻三秋>
 <이자날> - <二君不事> - <二夫不更>
 <오자> - <五馬> - <오신> - <五倫>

이와 같은 민요는 의미의 상관성보다도 시니피앙들 사이의 유사성의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두음중첩법>에 적합한 어휘이면 무엇이든지 끌어다 붙여 사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닌다.

18) Tzvetan Todorov [신진·윤여복 역]; 『상징과 해석』 (부산: 동아대학교출판부, 1987) p. 103.

19) Ibid., p. 103f.

20) 앞서 유음어중첩법을 설명하면서 거론한 민요 「그릇타령」에서도 <두음중첩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오(동이) - 동서(동서)> : [동]
 <사발 - 사돈> : [사]
 <마당 - 마누래> : [마]

21) Oswald Ducrot & Tzvetan Todorov, op. cit., p. 234 및 김진우; 『언어-그 이론과 응용-』 (서울: 탑출판사, 1985) p. 374.

가장자는 유음어중첩법과 두음중첩법을 사용함으로써, 곧 음이 유사한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규모가 큰 텍스트의 구조를 그의 기억장치(storage)에 쉽게 갈무리할 수 있고, 텍스트 구성에 필요한 어휘들을 효율적으로 연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 구성원리는, 『한국민요집』에 수록되어 있는 「數謠」, 「한글謠(한글풀이)」, 「曜日謠」 등²²⁾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음이의어를 이용하여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는 이를 이중약호로 사용함으로써 수수께끼와 같은 언어유희의 효과를 나타낸다. 동일어를 동시에 문자 그대로의 뜻과 문맥적인 뜻(또는 비유적 의미)으로 사용하는, 이와 같은 표현법은 서양 수사학에서 일필쌍서법[또는 兼用法 syllepses]이라 칭한다.²³⁾

언어유희는 소리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동음어) 유사하지만, 뜻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낱말들을 이용한 놀이를 말한다. 모호한 말투(equivoque)로 알려진 언어유희의 한 특수 형태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가진 한 어휘 또는 어절을 두 의미가 동등하게 적절할 수 있는 문맥 속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²⁴⁾

다음과 같은 「장타령」도 하나의 언어기호를 이중의 약호로 사용한 언어유희를 드러내고 있다.

[6] 설설진다 기개장 무릎아파 문보고/앉아본다 안간장 고개아파 문보고
/서서본다 서울장 다리아파 문보고/입크다 대구장 무서워서 문보고
/도보한다 경주장 숨이가빠 문보고/울울적적 울산장 답답해서 문보
고/국끼린다 장내장 묵고싶어 문보고/초상났다 상주장 시끄러워 문
보고²⁵⁾

위 민요의 각 행은 시니피앙들 사이의 유사성이나 시니피앙의 중의성을 이용하여 생성된 것이다. 위 민요에서 〈기다-杞溪〉, 〈앉다-安康〉, 〈서다-서울〉, 〈울울적적-蔚山〉 등은 유음어중첩법에 의해 결합된 것이라면, 〈입크

22) 任東權; 『韓國民謠集』 I~V (集文堂, 1961-1980) 「語戲謠」 및 타령편 참조.

23) Michael Riffaterre; Semiotics of Poetry [유재천 역]; 『시의 기호학』 (서울: 민음사, 1989) p. 139 참조. 또한 Alex Preminger(e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4) p. 681 cf.

24) M. H. 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권택영·최동호 편역; 『문학 비평용어사전』 (서울: 새문사, 1985)」 p. 250.

25) 임동권(1961) p. 226 「장타령 4」

다-大口(=大邱), 〈徒步-競走(=慶州)〉, 〈初喪-喪主(=尙州)〉 등은 시니피앙의 중의성을 노린 표현이다. 여기서 시니피앙의 중의성이란 동일 시니피앙이 2개의 시니피에를 가지도록 사용한 것을 말한다. “장내”는 市場이 개설되는 곳의 지명이면서, ‘국 끓일’ 때 나는 장내(漿甕새)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곧, 이는 동음이의어를 이중약호로 이용한 것이다.

구비시가의 사설 구성에 사용될 어휘들을 용이하게 연상해 내고, 이들 어휘들을 적절하게 결합함으로써, 구비시가의 구연 자체가 유쾌한 발화 행위로서의 유희성을 지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창자는 음의 유사성의 원리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의 유사성〉에 입각한 구비시가의 사설 구성 방식은 주로 음성적 등가성의 연쇄 효과를 창출하여, 텍스트의 구성 단위들에 음성적 연속성을 부과한다. 곧, 음성적 등가성을 지닌 어휘들을 결합하여 청중들에게 통일된 인상의 효과를 줄 수 있다. 나아가 음성적 등가성의 연쇄는, 노래라는 특수한 담화 행위를 취하는 구비시가의 사설에 음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 의미의 유사성

구비시가 사설 구성 방식의 하나로서, 시니피에들 사이의 유사성 원리는 어휘 의미의 유사성 내지는 文脈的 類義性을 이용하여 텍스트 구성에 필요한 어휘들 또는 구성 단위들을 선택하고 결합한 것을 말한다. 곧 구비시가의 사설은 ‘의미론적 등가성’을 지니면서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는 이를 구비시가 사설의 구성 방식의 하나로서, 〈의미의 유사성의 원리〉라 명명한다.

구비시가 사설 구성에 있어서, 의미의 유사성에 입각하여 어휘들을 선택 결합할 때는 주로 類義語와 同位語들이 사용된다. 사설의 구성 단위들 사이의 의미적 결속성은 이들 어휘들의 의미 특성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병행구문과 되풀이 등의 결속구조를 통해서도 문맥적 類義性이 창출되는데, 구비시가는 이러한 유의성을 羅列하여 사설을 길게 엮어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 [7] 이논에라 모를숨거 금실금실 영화로세
우리동생 굼기길러 갓을쓰고 영화로세²⁶⁾
- [8]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서 지는가
나를 버리고 가신님이 가고 짚어 간가²⁷⁾
- [9] 구슬이 바회에 디신돌/긴히쑈 그츠리잇가/즈믄히를 외오곰 너신돌
/信잇돈 그츠리잇가/²⁸⁾

민요 [7]은 병행구문과 되풀이를 함께 구사하고 있는데, 그중 특히 ‘영화로세’의 되풀이를 통하여 두 제재 ‘모’와 ‘동생’ 사이의 문맥적 유의성을 도출해내고 있다. 민요 [8]은 병행구문을 통해 〈해〉와 〈님〉 사이의 유사성을 도출시키고 있다. ‘서산에 해가 지는’ 현상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자연 현상이듯이 ‘나를 버리고 님이 간’ 데에는 무슨 필연적인 사연이 깃들여 있다는 뜻이다. 이 노래는 병행구문의 결속구조를 활용하여 〈지는 해〉와 〈가신 님〉 사이에 의미적 등가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비시가에 병행구문과 되풀이는 텍스트의 결속구조를 형성하고, 나아가 의미적 결속성(coherence)을 창출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高麗俗歌인 위 [9]의 「西京別曲」 제5·6장과 제7·8장(총 14장의 음악적 분단 중)에서도 병행구문과 어휘(그츠리잇가)의 되풀이를 통하여 의미의 유사성을 창출하고 있다. 상황 변화에도 ‘끊임 없는 끈’과 같이, 시간 변화에도 님에 대한 ‘끊임 없는 信’(不斷한 一片丹心)을 나타내고 있다. ‘信’이라는 추상적(不可視的, 精神的)인 것을 ‘끈’이라는 구체적(可視的, 物質的)인 것에다 유사성을 유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미의 유사성의 유추는 은유나 직유 같은 비유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지만, 이와 같은 병행구문과 되풀이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다. 이를 비유적 유의성에 대비되는 〈문맥적 유의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병행구문이 지니는 통사구조의 동질성은 의미의 동질성을 산출

26) 장관진(1989) p. 218 「모내기노래」

27) 金承燦: 『한국구비문학대계 6-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 136 「아롱타령」 중에서.

28) 『樂章歌詞』, 「西京別曲」 중에서. 위 인용부분은 「鄭石歌」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다.

하는 데,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요를 비롯한 구비시가의 병행구문은 텍스트의 “의미론적·통사론적 일관성”²⁹⁾을 산출한다고 할 수 있다. 곧, 병행구문은 텍스트의 결속구조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의미들 사이의 유사성을 창출하여 결속성의 관계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적 틀이라 할 수 있다.³⁰⁾

- [10] 성아성이 사촌성이 시집살이 어렵더노/사집살이 좋더마는/조끄마
는 웅달샘이 물퍼기도 어렵더라/조끄마는 도래판에 수저놓기 어렵
더라/주우벚은 시아재비 말하기도 어렵더라/위하까 나아하까 나아
하든 난처하고/위하면 내가쉽고/조끄마는 수박식기 밥담기도 어렵
더라³¹⁾ (밀줄 필자)

민요 [10]에서, 밀줄친 행들은 어휘의 되풀이와 병행구문 등 다양한 반복 원리를 지니고 있다. 어휘의 되풀이(‘조끄마는’, ‘어렵더라’의 반복)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이들 밀줄 친 행들은 모두 의미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등가물이다. 곧, 〈화제〉를 제시하는 명사들인 〈웅달샘-도래판-시아재비-수박식기〉 등은 작음(규모에 있어서) 또는 적음(年少: ‘바지를 벗음’에서 연상되는 어렵)이라는 의미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명사형으로 텍스트 표층에 실현된 동작 동사들의 행위소들(〈물퍼기-수저놓기-말하기-밥담기〉)도 모두 어휘적 되풀이에 의해 동일 의미(어려운 일)가 부여되고 있다. 이들은 ‘사소하거나 하잘 것 없는 일에도 시집살이의 고충을 겪는다’는 텍스트의 의미판독(decoding)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의미 등가물로서의 해석항들(interpretents)이다.³²⁾

29) Peter V. Zima(허창운 역), 『텍스트사회학』 (민음사, 1991), p.166.

30) “텍스트상의 사건이나 상황들을 단순히 병치(juxtaposition)시킴으로서 결속성의 관계를 복원하거나 창조하는 조작과정(operations)을 활성화시킨다.” Robert-Alain de Beaugrande & Wolfgang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金泰玉·李玄浩 共譯] op. cit., p. 8f.

31) 장관진(1989) p. 224. 「시집살이노래」全文.

32) 해석항이란 원래 피어스(C. S. Peirce)가 기호가 야기시키는 관념이란 뜻으로 사용한 말인데, 리파테르(M. Riffaterre)는 기호의 축적적 뜻(meaning)으로부터 텍스트의 의미(Text's significance)로 전환시키는데 이 해석항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이 해석항들은 곧 텍스트의 독해 과정에서 지각되는 의미 등가물, 곧 동의어들의 계열체(paradigm of synonyms)이다. Michael Riffaterre(유재천 역) op. cit., p. 139 참조.

이와 같은 민요는 병행구문과 되풀이라는 반복원리를 활용하면서 문맥적 유의성을 지닌 구성단위들을 나열하여 텍스트 통합구조에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시에서는 등가의 원리 — 여기서는 類義性이 가지는 의미상의 등가성 — 가 배열의 구성적 기법으로 격상된다’³³⁾는 詩法(詩性的 原理)은 구비시가에도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민요 [11]도 역시 되풀이와 병행구문을 통해 시니피에들 사이의 유사성을 창출하고, 나아가 이를 텍스트의 통합구조에 배열하는 유의성의 나열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11] 처녀총각 정드는데는 첫날저녁에 정이들고/신랑각시 정드는데는 요
이불밑에서 정이들고/영감할멈 정드는데는 담배꼭지에서 정들고/
과부홀애비 정드는데는 탁배기한잔에 정이든다/³⁴⁾

곧, “〈A〉 정드는 데는 〈B〉에(서) 정이 들고 [든다]”의, 되풀이가 개입된 동일 통사구조를 네 번 반복하고, 〈A〉, 〈B〉 부분에 새로운 구성요소(명사구)를 삽입 대체하면서 텍스트를 엮어나가고 있어서, 되풀이와 병행구문을 통해 결속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속구조는 텍스트의 의미의 결속성을 창출하는 효과를 지닌다.

위 민요 [11]에서 동일 통사구조 속에 삽입 대체되는 〈A〉부분은 부부 관계와 婚外관계를 포괄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등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 민요는 문맥적 유의성을 지닌 어구들을 텍스트에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텍스트 전체의 의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비슷한 〈상위 부류〉의 의미에 속할, 특수하고 다양한 사랑의 관계의 여러 〈하위 부류들〉을 나열함으로써, 사랑의 양상을 상세화(특수화; specification)하고 있다. 또한 〈B〉 부분들에도 여러 특수한 緣分의 계기들(텍스트의 표층에 드러난 바 ‘정드는 데’ 충분 조건으로 작용한 특수한 계기들)이 나열되고 있다. 따라서, 위 민요는 어구 단위로는 동위어 어구들을 나열하고 있고, 행 단위로 보면 유의성을 나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Roman Jakobson; Language in Literature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9) p. 140.

34) 『한국구비문학대계, 8-9』 (1983) p. 285f. 「창부타령」 중에서.

이와 같이, 구비시가는 시니피에들 사이의 유사성을 지닌 텍스트 구성 단위들을 배열함으로써 구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곧 유사한 속성이 유추될 수 있는 종류들을 나열하는 형태의 구비시가는 전부 이와 같은 텍스트 생성원리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雜歌도 그 전형적인 예들 중의 하나다.

- [12] ①에~ 관동팔경을 구경을 가자
 ② 강능에 경포당 양양에 낙산사
 ③ 울진에 망양당 삼척에 죽설루
 ④ 고성에 삼일포 통천에 충석당
 ⑤ 평천에 월송당 간성에 청간당이란다
 ⑥ 놀기 조키는 남원에 광활루로다³⁵⁾ 〈번호-필자〉

위 雜歌에서도 시니피에의 유사성을 지닌 어구들을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행에서 ‘關東八景’이라는 上位語가 쓰인데 비하여 ②~⑤행에서는 그 하위부류를 나타내는 下位語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하위어들은 상호 관계로 따지면 同位語라 할 수 있다.³⁶⁾이 경우 ‘최초 언급은 전체 텍스트의 일종의 요지(Resumée) 내지는 내용요축을 표시하는데 대하여, 뒤행들은 최초 언급의 관점에 서면 특수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이 경우 의미의 등가성은 〈상위어〉와 〈하위어들〉 사이에 성립되지만, 〈하위어들 상호간〉에도 동일 부류에 속할 하위 부류들이라는, 곧 同位語로서의 의미자질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잡가에는 이와 같은 유의성의 나열 원리로 구성되는 예가 많다. 雜歌 「새타령」과 「바위타령」도 전형적인 同位語들의 나열을 보여주고 있다. 南道雜歌

35) 정재호 편 『韓國雜歌全集』 제4권, (계명문화사, 1984) p. 73. 「경사거리」 중에서.

36) 예를 들어, ‘부부’와 ‘남편 : 아내’라는 어휘들에서 ‘부부’는 ‘남편 : 아내’의 상위어이고, ‘남편 : 아내’는 ‘부부’의 하위어들이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상호 동위 관계에 놓여 있는 同位語들이다. 이 상위어와 하위어를 상호 관련지어 엮어서도, 텍스트의 결속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강우원 ; 「월의 엮음에 대하여」, 『國語國文學』, 제28집 (부산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p. 8f.

37) 고영근 ; 「텍스트 이론과 국어통사론 연구의 방향」, 『배달말』, 15호 (형설출판사, 1991) p. 19 참조.

인 「새타령」과 같은 새의 나열은 12잡가 「재비가」에도 보이고 있다. 「바위타령」, 「만학천봉」, 「병정타령」, 「육칠월」, 「곰보타령」 「생매잡아」, 「기생타령」, 「맹꽁이타령」, 「비단타령」 등의 「취물이잡가」³⁸⁾도 이와 같은 유의성의 나열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갓은 방물가」, 「장기타령」, 「꽃타령」, 「개성팔경가」 등의 雜歌도 이와 같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2.3 사설 구성의 인접성 원리

인접성의 원리는 인접해 있는 순서나 질서에 따라 텍스트의 구성단위소를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인접성이 배열원리로 사용된 경우는 〈공간적 인접〉, 〈시간적 인접〉, 〈숫자 문자의 순서〉, 〈행위의 인접〉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텍스트의 생산의 측면에서 총체적 거시구조, 곧 텍스트의 全般的 類型(全局的 패턴 global pattern)을 생성하는 작용을, 정보 이론에서는 총괄화(totalisation) 또는 포괄화(globalisation) 작용이라고 한다.³⁹⁾ 인접성의 배열 원리로 생성된 텍스트는 텍스트 생산자가 정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련의 항목들(items; 정보 이론에서의 프로그램 단위들)을 인접해 있는 순서에 따라 전개하는 책략을 발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구비시가의 가창자가 효율적 정보처리를 위해 미리 계획한 책략으로서의 인접해 있는 일정한 순서라는 도식(schema)을 활용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도식은 정보를 완전한 덩어리로 저장하게 하는데 유효하기 때문에,⁴⁰⁾ 구비시가 가창자는 이 도식을 활용함으로써, 텍스트를 기억하기에도 쉽고 기억에서 재생하기에도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13] 어와 아비즈이여 處容아비 즈외여／滿頭插花 계오샤 기울어신 머리
예／아으 壽命長遠하샤 넘거신 니마해／山象 이숫 김어신 눈세에／

38) 李昌培 編著; 『歌謠集成』 (弘人文化社, 1976) 취물이부 참조.

39) Daniel Delas & Jacques Filliolet 「柳濟寔・柳濟浩 譯」, 『언어학과 시학』 (全州: 도서출판 인동, 1985) p. 77 참조.

40) Robert-Alain de Beaugrande & Wolfgang Dressler (金泰玉・李玄浩 譯), op. cit., p. 87f. 참조. 스키마(schemas)는 인접성의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한 全局的 패턴을 의미한다.

愛人相見^하샤 오슬어신 누네／風入盈庭^하샤 우글어신 귀예／紅桃花
 7티 붉거신 모야해／五香 마루샤 웅긔어신 고해／이으千金 머그샤
 어위어신 이배／白玉琉璃7티 킨어신 닛바래／人讚 福盛^하샤 마나거
 신 옥애／七寶 계우샤 숙거신 엇게예／吉慶 계우샤 늘의어신 스맷길
 해／설의 모도와 有德^하신 가스매／福智俱足^하샤 브르거신 킨예／홍
 덩 계우샤 굽거신 허리에／同樂太平^하샤 길어신 허튀예／아으 界面
 도루샤 넘거신 바래／누고 지어 세니오

- [14] 正月^하 나릿 므른／아으 어저 녹저 ^하논티／누릿 가온티 나곤／몸하
^하올로 넘서／아으 動動다리／二月^하 보로매／아으 노피현 燈^하를
 다호라／萬人 비취실 즈시샷다／아으 動動다리／三月 나며 開^하／아
 으 滿春 돌 윗고지여／누믹 브를 즈술／디너 나샷다／[하략]

- [15] 一^하字나한장 들고봐／일이나송송 야송송／밤중새별이 완연하다／二^하
 字나한장 들고봐／晉州妓生 義岩이／倭將清正 목을안고／晉州南江
 떨어졌다／三^하字한장 들고봐／三月이라 三辰날／제비쌍쌍 날아들고
 ／四^하字한장 들고봐／使臣行次 바쁜길／點心참에 중에로다／五^하
 字한장 들고봐／五關斬將 關雲長／赤兔馬를 비켜 타고／황룡도로 다
 러들어／⁴¹⁾

- [16]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복이 노던 달아／저기저기 저달속에／계수나
 무 백혔으니／금도꾸로 찍어내려／옥도꾸로 다듬아서／초가삼간 집
 을지어／양친부모 모셔놓고／천년만년 살고지고／⁴²⁾

高麗俗歌인 「處容歌」 ([14])에서 처용의 모습을 노래한 위의 대목은 신체
 의 上體에서 下體로 철저히 이행하는 〈공간적 인접 순서〉를 도식으로 하고
 있다. 민요 「배틀가」에서도 가창자는 그의 기억 장치에 배틀의 세부 모습을
 공간적 순서에 따라 인지하는 하나의 도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도식에 따
 라 민요 텍스트의 구성소를 배열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질서에 따라 텍
 스트의 구성소를 배열함으로써 구비시가 가창자는 텍스트에 동원되는 정보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텍스트를 기억하기에도 용이할 뿐 아니라, 기억
 에서 재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용이하다. 왜냐하면, 공간적 인접 순서는
 텍스트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지심리학적 도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순서에 따라 텍스트의 구성단위를 연쇄
 배열함으로써 텍스트의 통합체를 형성하는 경우, 가창자는 공간적 인접 순서
 에 따라 텍스트의 구성단위를 떠올리면서 긴 노래의 세부 순서를 결정하고

41) 任東權(1961), p. 227f. 「각설이타령 2」 중에서.

42) 『한국구비문학대계 6-3』 (1984), pp. 130-131. 「강강수월래」 중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15]의 고려속가 「동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창자는 텍스트의 구연에 있어서 〈시간적 인접 순서〉를 도식으로 활용하여 텍스트의 구성소를 배열함으로써, 기억의 부담을 덜 수 있고 텍스트의 구성소를 쉽게 기억에서 회상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텍스트 전체를 용이하게 생성해 낼 수 있다. 시간적 인접 순서에 의해 텍스트의 총체적 국면 내지는 全局的 패턴의 생성하는 경우는 「달거리게 민요」나 「화투뒤풀이」 등과 같이 月次的 순서를 활용하거나, 또는 요일의 순서(민요 「曜日謠」) 등을 도식으로 활용한다.

구비시가는 〈수와 문자의 인접 순서〉에 따라 텍스트의 구성단위를 배열함으로써 텍스트의 순차적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민요 [16]은 숫자적 인접 순서를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의 거시구조를 생성하고 있다. 「數謠」같은 민요들은 모두 〈숫자의 순서〉가 ‘도식’으로 사용된 全局的 패턴을 보여 주는 대표적 예이며, 「한글뒤풀이」 같은 구비시가들은 〈문자의 순서〉를 도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예이다. 이와 같이, 구비시가 가창자는 작시의 용이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체계에 간직하고 있는 〈도식(Schemas)〉을 이용하여 그 순서에 맞게 어휘들을 적절히 배열함으로써 구비시가 텍스트를 생성해 낸다. 구비시가 중 「각설이타령」, 「천자풀이」, 「글자풀이」, 「언문풀이」, 「언문뒤풀이」, 「99풀이(구구가)」, 「수풀이」, 「십장가」 등은 이와 같이 〈수와 문자의 순서〉를 도식으로 활용하는 인접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구비시가 가창자는 기억의 부담을 비교적 적게 들이고 구비시가 텍스트를 생성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생산 과정에 있어 구성상의 책략으로서 〈행위의 인접 순서〉라는 플랜(plan)을 사용한다. 이러한 행위의 연쇄(사건event과 행동의 연쇄)는 텍스트를 창조하는 절차적 모델(procedural model)로서 정보 처리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⁴³⁾

민요 [16]에서 설화적 모티브로 채택된 ‘계수나무’는 곧 ‘材木’라는 의미로 전환되고, 여기에서부터 〈행위의 연쇄〉가 잇따른다. [〈계수나무〉→〈금도끼로 찍어내다〉→〈옥도끼로 다듬다〉→〈초가삼간 집짓다〉→〈양친부모 모

43) Robert-Alain de Beaugrande & Wolfgang Dressler (김태옥·김현호 共譯), op. cit., p. 43 참조.

시다]] <행위의 연쇄>는 후향성(backward directionality)이라는 시간의 배열을 수반하게 된다. 후향성이란 후속 사건이나 상황이 선행하는 것들에 대한 목적이 되는 시간 관계의 배열을 말한다.⁴⁴⁾ 후속 행위는 앞서 나온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계획된 행위, 곧 선행 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초가삼간 집짓다>라는 선행 행위는 <양친 부모 모시다>라는 후행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을 짓기’ 위해서 ‘木材를 다듬고’, ‘목재를 다듬기’ 위해서 ‘나무를 찍어내는(樹木의 採取)’것으로 의미의 결속성을 분석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도된 목적 또는 목표를 향해 가는 사건과 상태들로 구성된 全局的 패턴은 특히 장형의 구비시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儀式謠인 「지신밧기노래」, 「성주풀이」 등에서 집을 짓는 과정이 행위의 순서라는 플랜에 따라 개진되는 대목이 그 예라 할 수 있다.⁴⁵⁾

인접성의 순서에 따른 배열의 규칙성은 가창자가 구비시가를 인지 경험의 연속성에 의존하여 구성하며, 청중의 수용과정에서 쉽게 텍스트의 진행상을 이해하도록 전달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배열의 규칙성은 구비시가 가창자에게 작시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나아가 기억하기에도 편리하며, 기억에서 재구성하기에도 용이하게 하는 텍스트의 총체적 거시구조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창자는 구연과정에서 인접성의 순차적 순서에 맞지 않거나 어느 특정 순서를 빠뜨리면, 불완전한 텍스트가 되거나 誤唱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⁴⁶⁾ 따라서 구비시가에는 시간 역전과 같은 순서의 전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인접성의 순서라는 통사적 국면의 배열의

44) Ibid., p. 8 참조.

45) 류종목님은 「지신밧기노래」 등의 歲時儀式謠에 나타나는 서술방법의 類型構造를 進行型과 并列型으로 대별하고, 진행형을 시간적 진행형과 공간적 진행형으로 나누었다. 시간적 진행형은 바로 행위의 순서에 따른 진행에 해당한다. 柳鍾穆: 『韓國民間儀式謠研究』(집문당, 1990) pp. 94-97.

46) 구연 현장에서 살펴보면, 구비시가의 가창자는 불완전한 텍스트를 구연할 경우, 어느 부분(순서상의 대목)이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 대목을 배열의 순서에 맞게 복원하여 구연을 재시도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구비시가 가창자는 구비시가의 배열의 순서를 <도식>으로 활용하면서, 그 순서에 거의 완전하게 맞추어 구연하려 애쓴다. 구비시가 가창자는 구연과정에서 ‘다음은 어떻게 다음은 어떻게’하는 따위의 배열 순서상의 질서의식을 뚜렷이 가지면서 구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구비시가의 텍스트 구성 책략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비시가는 (1) 이미 한번 사용한 텍스트 구성요소를 재사용함으로써 앞선 사실과 뒤따르는 사실 사이에 상호의존적 위음을 형성하며, (2) 음이나 의미가 비슷한 구성요소를 선택 결합하며, (3) 인접해 있는 순서에 따라 텍스트의 구성요소들을 배열함으로써 텍스트의 총체적 거시구조를 형성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1)은 <반복적 위음 원리>, (2)는 <유사성의 원리>, (3)은 <인접성의 원리>라 명명하였다.

구비시가의 사실 구성에서 반복적 위음 원리는 사실을 상호관련지어 엮어 가는 구조적 틀로 기능하면서, 사실을 장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뿐 아니라, 청중에게 정보전달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텍스트 구성요소들 사이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유사성의 원리 중의 음의 유사성의 원리는 구비시가 텍스트의 언어 유희성을 강화하고 구성요소 사이의 음성적 등가성을 창출하며, 의미의 유사성의 원리는 解釋項(interpretent)을 나열하고 텍스트의 구성요소 사이의 의미론적 등가성을 창출한다. 또한 인접성의 원리는 순서상의 구성 책략으로서의 圖式(schemas)과 플랜(plans)로서 주로 기능한다.

이들은 모두 구비시가의 作詩와 口演, 記憶 등을 용이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책략적 장치들이라 할 수 있다.